보도시점 2026. 11. 21.(토) 배포 즉시

노동부 장관, 국가자격시험장 현장 살핀다

- 「국가자격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」 회의(11.19.) 이어 자격 시험장 현장 찾아
- 장관, 인력공단에 과거 시험관리 방식에서 탈피, 감독관 교육 강화 등 지시

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**11월 21일(토) 07:30** 경비지도사 **국가자격시험장**인 서울 용산 소재 용산철도고등학교를 방문하여 **시험장 준비** 및 **시험감독관 교육** 등을 확인했다.

고용노동부는 **최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세무사시험 부정행위**를 계기로 한국산업인력공단 **자격검정시스템의 종합적 점검**을 위해 **11.19.(목) 「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」 1차 회의를 개최**하였다.

이번 점검은 「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」 1차 회의에 이어 **실제 현장의 자격시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**하여 **현장 여건에 맞는 개선 대책을 준비**하기 위해 실시하였다.

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**고사장, 시험본부 등을 직접 확인**하고, **▲시험장 시설 및 시험 준비 상황**, **▲시험감독관 및 AI 인스펙터 교육 상황**, **▲AI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 상황(부직포 앞치마 등)**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. 특히 이번 시험부터는 휴대폰 등 **전자기기는 감독관이 전원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일괄 관리**하며, 응시자에게 **무작위로 전화**를 걸어 **휴대폰 전원의 차단 여부를 재점검**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.

김영훈 장관은 시험감독관에게 "갈수록 **부정행위 기법이 고도화**되는 만큼 **감독관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**이다"라며, "면밀한 감독과 함께 **사소한 이상 행위라도 시험본부와 협의**하여 줄 것"을 당부하고,

함께 점검에 참여한 인력공단 이병훈 이사장에게 “**AI와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**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, **과거의 시험관리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**”라며, “**모든 시험장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**하고, **시험감독관 교육**을 포함한 **근본적 개선 방안을 준비**할 것”을 지시했다.

담당 부서	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	책임자	과 장	이재국 (044-202-7286)
		담당자	사무관	이동현 (044-202-7274)